

스웨덴에 신전이— 고대하던 날이 오다

11번의 헌납 모임에 5,233명 참석 : 4개 국어로 통역됨.



회원들이 다음 헌납 모임을 기다리는 동안 고든 비|헝클리 부대판장이 신전으로 들어가는 길을 따라 걷고 있다. 세럴 린들리와 디 아서 헤이록 형제가 동행했다.

스웨덴, 스톡홀름

스웨덴 신전—그것은 90세 된 힐더 비어클란드 자매에게는 잘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스웨덴 예이트보그 제2와드 회원인 비어클란드 자매는 63년 전에 교회에 들어왔다. 그동안 그녀는 고국에 신전이 건립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으나 실제로 그날이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러나 7월 2일부터 4일에 걸쳐, 북 유럽의 첫번째 신전이 대관장단 제2보좌인 고든 비 헝클리 부대판장에 의해 베스터해닝저에서 헌납되었다. 베스터해닝저는 스톡홀름 동남방 20km 지점에 있는, 소더튼 반도에 위치한 인구 61,000명의 해닝저시의 7개의 지방 가운데 하나다.

이 헌납식에는 십이사도 평의회의 일원인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도

참석했다. 그와 그의 아내, 프란시스 존슨 몬슨 자매는 모두 다 스웨덴계 조상의 후손이다.

다른 총판리 역원으로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이며 신전과 집행 책임자인 더블류 그랜트 뱅거트 장로, 유럽 지역 회장단인 조셉 비 워스린 장로와 러셀 시 테일러 장로, 조던 리버 신전장인 에이치 버크 피터슨 장로, 그리고 로버트 디 헤일즈 관리 감독이 참석했다.

스웨덴 고고학자들이 기원전 500여 년경의 고대 주거지와 묘지터로 믿고 있는 숲이 우거진 지역에 세워진 이 신전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및 핀란드 지역의 18,500명의 회원들을 위해 사용된다.

11번의 신전 헌납 모임에 총 5,233명이 참석했다. 네 모임은 스웨덴어로, 세 모임은 핀란드어로, 두 모임은 노르웨이어로, 그리고 두

모임은 덴마크어로 통역되었다.



스웨덴에 신전이 설 날을 수 십 년간 고대해 온 힐더 비어클란드 자매(90세). 그녀는 1922년에 회원이 되었다.

“이날은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교회 역사상 가장 의미깊은 날입니다.”

첫번째 헌납 모임에서 헝클리 부대판장이 말씀했다.

비어클란드 자매에게도 이날은 그녀의 생애에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이날은 너무나 특별한 날이에요. 그곳에서 특별한 영을 느꼈어요.” 일곱번째 헌납 모임에 참석하고 나운 뒤에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며느리 레이철이 통역하는 가운데 비어클란드 자매는

스웨덴어로 이렇게 말했다. “신전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세워질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1,500km 이상 떨어진 스위스 신전 대신에, 신전에서 8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살게 되었다.

“내가 죽기 전에 다시 한 번 이곳에 오고 싶습니다.” 신전에서 한 모임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거의 30년 전에 스위스 신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헌납식이 있기 전에 총관리 직원들과 그밖의 교회 지도자들은 정초식에 참석했는데, 정초식에서는 여러 가지 기념물을 담은 구리 상자를 “백 년 뒤에 꺼내 보기 위해” 신전 벽 속에 넣었다.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7월 5일 문을 연 스웨덴 스톡홀름 신전은 전세계에서 34번째로 운영되는 신전이며, 힝클리 부대관장이 14번째로 헌납한 신전이다. 그는 각 반복 모임에서 말씀을 했는데, 지난 2년 동안에 120번의 신전 헌납 모임에서 말씀했다고 했다.

신전의 헌납과 더불어, 힝클리 부대관장은 첫번째 모임에서, “주님 사업의 지극히 중대한 일이 스칸디나비아와 핀란드에서 이제 열리게 되었으며, 모든 교회가 여러분과 더불어 기뻐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선택된 나라에서 주님의 사업에 더욱 영화로운 날을 알리게 될 이날을 현신의 날, 다짐의 날이 되게 합시다.”라고 힝클리 부대관장이 선언했다.

후반의 한 모임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에 관해 말했다.

헌납 전에 있는 신전 공개 전시회 동안 47,609명이 다녀 간 것으로 추산되며, 그중 1,215명이 구도자 소개 카드를 작성했다. 그 중 700명 이상이 신전이 위치하고 있는 스톡홀름 2와드 구역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올로프 유신스키

감독이 말했다.

유신스키 감독은 “와드 회원들이 복음 선교사들과 동반자가 되어 구도자 소개 카드를 작성한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스웨덴 공보 책임자인 하칸 팜은 구도자 소개 카드 작성자 가운데 430명과 이미 접촉하고 있으며 200명 이상이 교회에 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에 밀접하게 관계해 온 몬슨 장로는, 지난 12월에 프라이버그시가 시의 크리스마스

메시지로 새로 완성된 건물의 사진을 걸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프라이버그, 드레스덴 그리고 그곳 정부의 관리들보다도 더 협조적인 관리들을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신전은 모든 참된 말일성도의 가슴 속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독일 이쪽 편에 사는 교회 회원들의 애정깊은 마음에서 나온 자부심이 그들의 희생과 더불어 그 건물속에 스며 들어갔습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더더 한체 박사가 프라이버그 신전 초석에 모르타르를 바르고 있는 것을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왼쪽, 헨리 제이 부르크하르트, 헤르만 칼보, 그리고 에밀 비 페처 형제가 보고 있다.



한국 관리본부 특별 모임

(아시아 지역 회장단 개편 및
한 인상 장로 한국 관리본부 대표자로 임명됨)



우로부터 애쉬튼 장로, 이 호남 장로, 디오거 장로, 한 인상 장로

1985년 8월 9일 오후 5시부터 신당
워드 예배당에서는 특별 모임이
있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애쉬튼 장로를
비롯하여 총관리 역원인 헤일즈 감독
(1985년 4월 연차 대회에서 관리
감독으로 임명되었음) 아시아 지역
회장인 브래드포드 장로, 디오거
장로, 윌콕스 장로, 기따무라 형제,
그리고 한국의 모든 지역 대표와
스테이크 부장, 선교부장이
참석하였다. 교회 직장에서 근무하는
많은 형제 자매들도 참석하였다.

이 모임에서 새로운 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제1보좌로 제이콥 디오거
장로와 제2보좌로 키드 더블류
윌콕스 장로가 새로이 지지되었으며
관리 감독으로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가 지지를 받았다.

이어서 아시아 지역 회장인
브래드포드 장로는 한 인상 장로가
한국 관리 본부 대표자로
임명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이 모임에 참석한 한국 성도들은
총관리 역원들의 모든 행사를



한국 관리 본부 대표자로 임명된 한 인상 장로

만장일치로 지지하였다.

이날 말씀한 연사들은 총관리
역원을 비롯하여 한국·일본 지역
실무 책임자인 기따무라 형제 그리고
이 호남 장로와 한 인상 장로가 각각
영어로 이야기하고 통역을 하였다.

애쉬튼 장로는 말씀하는 가운데
김블 대관장의 안부를 전했으며
교리와 성약 108편 7절을 인용하였다.

특히 그는 “너희의 모든 대화와
기도와 권고를 통해 형제를
강화”하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우리 모두는 “최막대”를 굳건히
붙잡고 맡겨진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디오거 장로는 스페인어로 간증을
전하고 이 호남 장로가 통역을
하였다. *

합창 경연 대회 (대구 스테이크)

대구 스테이크에서는 6월 15일
오후 6시부터 수성 와드에서 와드,
지부 대항 합창 경연 대회를 가졌다.

참여한 회원들은 그동안 연습한
숨씨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화음상’은 중리
와드가 차지하였으며, 장려상은 수성
와드, 단결상은 대명 와드가 각각
차지하였다. (중리 와드—204장,
165장, 수성 와드—23장, 204장,
대명 와드—165장, 204장)

특별 순서로 대명 와드에서는
“나물 캐는 처녀”를 이중창으로
불렀고, 수성 와드는 박 정아 자매가
“꽃구름 속에”를 불렀다.

신권 지도자들도 참석하여 264장을
4중창으로 불렀고, 중리 와드의 권
영준 형제, 권 영민 형제, 권 영훈
형제 등 3명의 바이올린과 첼로
연주가 있었다.

이날 심사위원으로는 최 갑수 부장,
황 유진 자매, 이 연속 자매, 김
문선 자매, 김 정애가 각각 복장,
화음, 가사 전달 그리고 무대 예절
등을 심사하였다. *

서울 서 선교부 새로운 지부 개설

공주 지부—충남 공주시 중동
67-3번지. 전화 2-2202.

홍성 지부—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동 249-2번지.

온양 지부—충남 아산군 온양읍
원곡리 443-54번지.

평택 지부—경기도 평택읍 비전리
764번지. 전화 52-0884.

안성 지부—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영동 574번지.

조치원 지부—충북 연기군
조치원읍 평동 44-1. 전화 2-4405.

금산 지부—충남 군산군 금산읍
상리 12-5번지. 전화 2-3308.

가좌 지부—인천시 북구 가좌동
30-2번지. *

이 성대 형제 일본 맹인 연합회 제38회 복지 대회 참가

서울 스테이크 청운 와드의 이 성대 형제(멜기세덱 신권반 교사)는 일본 맹인 연합회 초청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동경의 장야시에서 열린 맹인 복지 대회에 참가하였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초청된 이 형제는 “밝은 사회 맹인 클럽”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국립 맹학교의 교사로 봉직하고 있다.

그는 이번 대회에 참가한 소감을 이야기 하면서 “일본은 어느 곳을 가든지 점자 블록이 깔려 있으며 비행장이나 지하철 역마다 맹인 기관내 승강기에는 점자로 숫자가 표시되어 있어서 맹인 스스로 오르 내릴 수 있었습니다.”

“총회에서는 유명 인사는 물론 국회의원들도 참여하여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점자 및 녹음 도서를 자원 봉사자들이 제작하고 있었으며, 점자와 목자로 동시에 나오는 컴퓨터 출판기와 아연판 자동 출판기가 있었으며 점자 복사기도 훌륭하였습니다.”

“정보 문화 센터에서는 전화 문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였으며 동원되는 많은 인력은 자원 봉사원들의 봉사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일본 오사카 시립에 사는 이 성대 형제 부부

1985년도 하반기 서울 스테이크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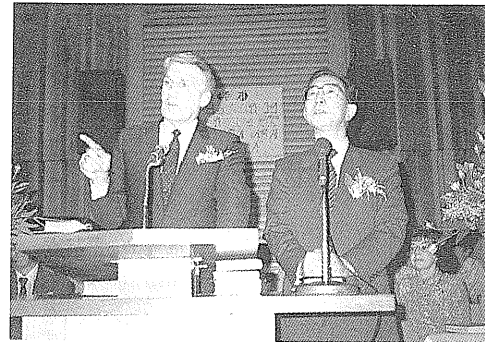
1985년도 하반기 서울 스테이크 대회가 6월 15~16일 양일간 신당동 스테이크 센터에서 로버트 비 하버슨 회장의 감리로 열렸다. 토요일인 15일에는 선교사업을 주제로 한 역원회와 주님의 속죄와 그의 공의와 자비의 원리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주제로 토요일 저녁 모임을 가졌다.

신권 지도자들이 참석한 역원회에서 하버슨 장로는 회원 선교 사업을 강조하면서, “스테이크의 발전은 신권 지도자 여러분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규적으로 구도자를 찾아 선교사에게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회원 각자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서는 올해 스테이크 개종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합니다”고 말씀했으며 올 하반기에 모든 성인들이 회원 선교사반에 참여할 것과 신권 집행 위원회에서 선교사업을 제일 먼저 다루도록 권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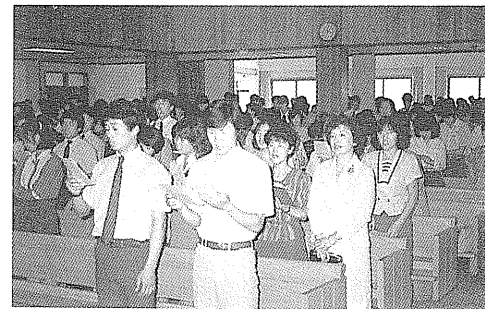
이어서 가진 토요일 저녁 모임에서는 구세주의 속죄와 그의 자비와 공의의 원리가 신권 지도자 개인의 생활이나 감독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데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해 최 무선 부장, 박 성진 감독, 서 인석 자매의 말씀이 있었다.

하버슨 회장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전세에서의 천국회회의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감동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그는, 구세주의 속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그의 소망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길을 마련해 주시기 위함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설명하고, “우리 모두 회개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용기를 가지기를 바랍니다”고 했다.

일요일 총회에서 신 일동, 홍 현길



말씀하는 하버슨 장로와 이 호남 장로



대회에 참여한 회원들

두 고등 평의원과 서 석진 형제가 대제사로 지지받았다.

김 용일 스테이크 부장은 선교사업에 관해 말씀하면서 물문경을 선교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근혁 부장은 한 흑인 병사의 아름다운 기도를 인용하며,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작은 축복은 감사하게 여기지만 더 심오하고 더 영적인 축복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유익한 시기에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고 했다.

이 호남 지역대표와 버틀러 선교부장의 말씀과 간증이 있던 뒤, 하버슨 회장은 간증을 키우는 일을 정원을 가꾸는 일에 비유하면서, “우리의 간증에 기도, 경전 공부, 봉사를 행함으로써 매일매일 영향을 공급하여 살찌워야 합니다.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과 간증을 키우는 것이 같지 않습니까?”했다.

참석 인원 405명. *

광주 스테이크 대회



스테이크 대회 광경

1985년도 전반기 광주 스테이크 대회가 6월 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한 인상 장로의 감리로 광주 스테이크 센터에서 열렸다.

대회 주제는 엘마서 32장 41절로 “너희가 말씀을 잘 간직하면 이는 너희가 나무를 가꾸고 갈아서 나무의 열매를 바라는 너희의 신앙과 부지런함으로 자라기 시작하여 뿌리를 퍼리니 영생으로 뻗어오르는 나무가 되리라”이었다. 첫날인 22일에는 신권회와 상호부조회 그리고 토요일 총회가 있었다.

충장 와드의 최 송민 감독과 농성 와드의 조 길자 자매는 가정 복음 교육 교사와 방문 교사로서 충실했을 때 얻은 축복과 기쁨에 대하여 말씀하였고 23일 일반 총회에서 한 인상 장로는 지난 연차 대회에 관한 말씀과 순종과 겸손에 대하여 말씀하였다.

대회에서 신권 지지는 다음과 같다.
—다음—

고등 평의원—오 진용 형제(풍향 와드), 조 용현 형제(농성 와드)
대제사—최 준영 형제(목포 와드)
칠십인—심 진규 형제(여수 와드), 황 신하 형제(풍향 와드)

장로—배 기선 형제(금성 지부)
안 성진 형제(목포 와드)
김 철기 형제(충장 와드)
박 진민 형제(목포 와드)
최 오식 형제(순천 지부)
신 수오 형제(농성 와드)
박 준호 형제(농성 와드)
서 갑규 형제(금성 지부) *

경전 경시 대회 및 무도회 (서울 동 스테이크)

서울 동 스테이크에서는 8월 17일 오후 4시부터 미아 와드에서 스테이크 청남, 청녀 주최로 세미나리 경전 경시 대회를 가졌다.

많은 신권 역원들과 100여명의 청남, 청녀들이 참여하였다.

이번 대회는 지난 1학기 동안 중등부 세미나리 과정을 복습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출제 문제도 세미나리 교재에서 많이 인용하였다.

세미나리 교사 중 우수 교사로는 상계 1와드 소속의 구 진자 자매가 선정되었다.

경시 대회가 끝난 후 집사 정원회 회원과 꿀벌반 자매들은 무도회에서 갖추어야 할 예절 등을 배웠고 그외 형제 자매들은 즐거운 무도회에 참여하였다.

경시 대회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아래—

최우수상—조 지희 자매(미아 와드)
우수상—최 윤정 자매(미아 와드)
장려상—이 진영 자매(미아 와드)
이 정아 자매(상계 1와드)
구 자길 형제(상계 1와드)
이 정규 형제(번동 와드)

선교 전시회 (여수 와드)

광주 스테이크의 여수 와드에서는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여수 시민을 대상으로 전시회를 가졌다.

전시회 안내는 감독단, 복음 선교 선교사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담당하였다.

전시된 내용은 복음의 원리, 구원의 계획, 지혜의 말씀, 신전의 중요성 그리고 교회 출판물 등이었다.

특히 영사실과 다과실을 마련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영화도 관람하고 다과를 들면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복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

전시회 기간 중에 관람한 시민은 200여 명에 달하였다. *

청소년 체육 대회 (영동 스테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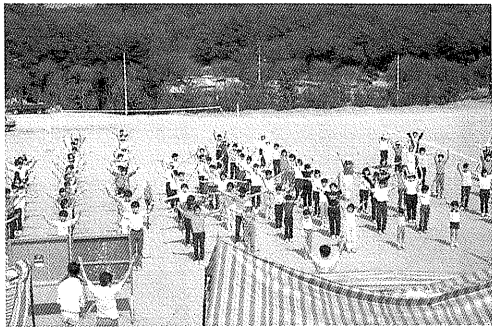
6월 6일 영동 스테이크에서는 성남시에 위치한 경원 대학교 운동장에서 청소년 체육 대회를 가졌다.

166명의 청남 청녀들과 고문들이 참여하였다.

박 재암 스테이크 부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이번 대회는 청팀, 백팀으로 나누어 경기를 진행하였다.

매년 경기장 사정으로 할 수 없었던 씨름 경기를 이번 대회에서는 형제와 자매가 모두 참여하여 흥미있게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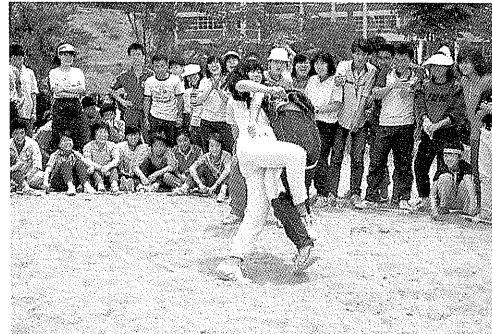
최우수상은 성남 와드의 조 일환 형제가 수상하였으며 우수상은 허 정 자매가 받았다.



시합에 들어가기 전 준비 운동 모습



자매 100m경주 모습



자매들의 씨름 경기 모습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54기 수료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54기(1985년 5월 20일-24일)를 수료한 8명의 선교사들이 아래와 같이 임지에서 각각 봉사중이다.

팔호안은 출신 와드/지부의 이름이다.

—아래—

이 중민 장로(대신 와드)—서울 서 선교부

김 미경 자매(용두 와드)—서울 서 선교부

김 춘옥 자매(반월 지부)—서울 서 선교부

문 정숙 자매(금성 지부)—서울 서 선교부

김명옥 자매(진주 와드)—서울 서 선교부

박 승현 자매(반월 지부)—부산 서 선교부

김 정희 자매(신길 와드)—서울 서 선교부

은 영배 장로(둔촌 지부)—서울 서 선교부 *

구 경희, 김 결주 자매 우승(전국 중별 베드민턴 대회)

부산 서 스테이크 대신 와드의 구 경희 자매와 김 결주 자매는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서울 서강대학교에서 계속된 전국 중별 베드민턴 대회의 여자 일반부 복식에서 영예의 우승을 차지하였다.

개그전에서 구 경희 자매는 3위에 입상하였다.

이들은 운동 선수로서는 노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혜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서 젊은 선수들과 뛰어도 지치지 않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구 경희 자매는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서기로 봉사하고 있으며 김 결주 자매는 대신 와드 청년 회장단에서 수고하고 있다. *

초등협회 재능 발표회 (서울 북 스테이크)

지난 6월 15일 오후 4시부터 북 스테이크 녹번 와드에서는 초등협회 재능 발표회가 열렸다.

김 조수 고등평의원이 감리하는 가운데 진행된 이 모임에서 영예의 초등협회상은 노래극 “은혜를 모르는 늑대”를 발표한 녹번 와드가 차지하였으며 으뜸상은 연극으로 “백설 공주”를 발표한 불광 와드가 그리고 버금 으뜸상은 역시 연극인 “달란트의 비유”를 발표한 모래내 지부가 차지하였다.

스테이크 산하 7개 와드/지부에서 열심히 준비한 어린이들은 참석한 부모님들과 회원들의 많은 갈채를 받았다. *

시온의 음악제

건전한 음악과 합당한 음악으로 우정을 돈독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6월 6일 인천 스테이크 부평 와드에서는 ‘시온의 음악제’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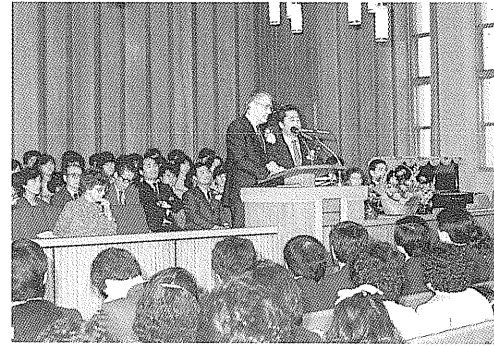
인천 스테이크 회원들과 강서 스테이크 부천 와드는 이모임을 통하여 우정을 다지며 노래 경연을 벌였다.

부평 와드의 고 천석 감독을 비롯하여 심사를 맡은 허 병석 형제 그리고 윤 상훈 형제의 사회로 진행된 이 모임에서 영예의 대상인 아담상은 ‘스틸어웨이’를 부른 인천 스테이크의 진 은주 자매 백 정주 자매, 그리고 백 운석 형제가 차지했으며, 니파이상은 부평 와드의 정 학수 형제와 김 현주 자매가 차지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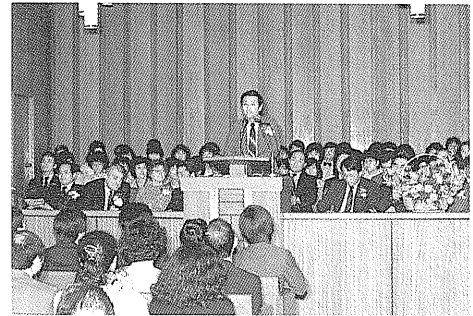
음악제를 마치고 함께 모인 회원들



강서 스테이크 대회



말씀하는 하버슨 장로와 한 인상 장로



새로 성임된 박 래정 스테이크 부장(중, 하)



1985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노량진 와드에서는 총관리 역원인 하버슨 장로가 감리하는 가운데 '85년도 전반기 스테이크 대회가 열렸다.

지역대표인 최 옥환 장로와 젠슨 선교부장을 비롯하여 8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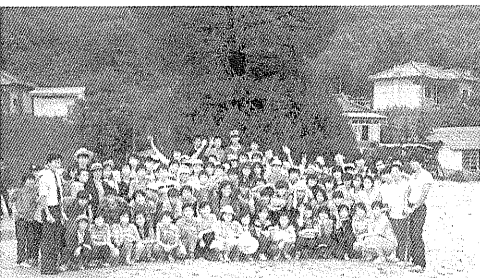
이번 스테이크 대회에서 이 도환 부장이 서울 선교부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해임되고 박 래정 형제가 강서 스테이크 부장으로 성임되었다.

그의 보좌로는 이 광정 형제(제1보좌)와 민 신흥 형제(제2보좌)가 각각 부름을 받았다.

새로운 스테이크 부장인 박 래정 형제는 오랫동안 교회에서 많은 직책에서 봉사하였으며 부름을 받기 전에는 고등평의원으로 봉사하였다.

서울 각 스테이크 청소년 대회 성료

서울 서 스테이크



대회에 참여했던 청소년들과 역원들

서울 서 스테이크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3박 4일 동안 강원도 원성군 문막면에서 신앙 개조 13조를 주제로 100여명의 청남, 청녀들이 참여하는 소년 대회를 가졌다.

대회 준비 기간부터 모두 힘을 모아 마련한 이번 대회에서는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질서 정연하게 진행되었다.

대회 기간 중에 있었던 침례식에는 갑자기 흐렸던 강물이 맑아지고 준비 역원들의 기도로 내리던 비가 멈추기도 하였다.

“시간 선교사” 활동 시간에는 인근 지역 200여명의 주민들에게 복음 선교사와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여 31가구의 주소를 서울 선교부에 보내기도 하였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얻은 간증을 발표하는 시간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하였다.

서울 북 스테이크

서울 북 스테이크는 '85 소년 대회를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동안 천마산 심신 수련장에서 16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하였다.

‘기뻐하고 함께 노래하자’는 외침 아래 연령 그룹별로 대를 편성하여 정원회와 청녀의 반조직을 강화시켰으며, 취침과 취사 시간은 와드, 지부별로 운영하여 와드, 지부 자체의 단결과 봉사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였다.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This is the

place’라는 활동이 있었다.

이 활동은 24일 오후 3시에 대별로 출발하여 약 7시간 동안 행군하며 산속을 누비며 지정된 지점들을 거쳐오는 국기 훈련이었다.

잠시나마 교회 초기 성도들의 어려움을 느껴보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었다.

어려운 상황속에서 서로 돕고 기도하는 경험을 통하여 신앙을 키우고 단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마지막 날 2시간 동안 계속된 간증회에서는 30여명의 청소년들이 훌륭한 간증을 해주었다. *

협차게 구호를 외치고 있는 청소년들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55기 수료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55기(1985년 6월 17일-21일)를 수료한 6명의 선교사들이 아래와 같이 임지에서 각각 봉사중이다.

팔호안은 출신 와드/지부의 이름이다.

—아래—

박 상용 장로(혜화 와드)—서울 서 선교부

편 무광 장로(상계2와드)—서울 서 선교부

최 진규 장로(중리 와드)—서울 서 선교부

강 경숙 자매(목포 와드)—서울 선교부

송 미희 자매(불광 와드)—부산 선교부

이 현정 자매(원주 지부)—부산 선교부 *

서울 지역 4개 스테이크 독신성인 합동 무도회

1985년 6월 1일 신록과 장미가 어울어진 청운 와드 운동장에는 독신성인들의 기대와 열기와 싱싱한 웃음으로 가득찼다. 서울 지역 4개 스테이크(서울, 동, 영동, 동대문) 독신성인들이 합동 무도회를 가진 것이었다.

저녁 6시부터 시작된 이 모임은 개회 순서와 오락에 이어 무도회가 진행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진지한 태도와 커다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다.

특히 이 모임은 서울 지역 결혼 전문 위원회에서 주관한 것으로서 지역내의 혼기를 앞둔 독신성인들이 서로 친할 수 있고 회원간의 결혼을 촉진하기 위한 사교 모임으로 계획되었다.

이 모임에 참석한 독신성인들은 앞으로 자주 이러한 모임을 갖기를 희망했다. 한편, 서울 지역에서는 이러한 모임을 1년에 4번 갖기로 하고, 스테이크 별로 돌아가며 모임을 주관하기로 했다. 이날 모임은 서울 스테이크에서 주관하였다. (참석 인원 172명) *

이리라 어린이 전국 창작 동요 경연 대회에서 수상



이리라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노래 부르는 모습 (가운데)

지난 6월 2일 어린이 대공원 야외 음악당에서 열린 소년 동아일보 주최 전국 창작 동요 경연 대회에서 서울 스테이크 청운 와드 이리라 (청운국교 6년) 어린이가 전국 각 국민학교에서 선발된 1600명의 어린이들 가운데서 20명의 우수한 어린이로 뽑혔다. 이리라 어린이가 작곡, 작사한 작품은 “몽당 연필” *

부산 스테이크 대회

“너희 섬길자를 오늘날 택하라”(여호수아 24:15)는 말씀을 주제로 부산 스테이크 대회가 지역 대표인 한 인상 장로의 감리로 5월 1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정 와드에서 열렸다. 토요일 저녁의 신권회에 이어서 일요일에는 일반 총회와 성인을 위한 모임을 함께 가졌다.

이날 연사들이 말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1. 우리가 섬길자를 이시간에 바로 택하고 순종하자.
2.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항상 우리 몸에 거할 수 있도록 생활해야 한다.
3.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해야 한다.
4. 간절히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며 기도의 응답을 조심스럽게 들어야 한다.
5. 선교사업 대상은 무한히 많으므로 회원들이 합심하여 선교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6. 회원들은 날짜를 정하여 그날엔 누구나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이번 대회에서 합창단은 164장과 113장을 불렀으며 보이스코웃 대원들은 질서 정연하게 안내를 맡아주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13명의 형제가 장로로 지지되었다.(수정 와드: 도 제현 형제, 성 대균 형제, 나 동환 형제, 울산 지부: 김 규택 형제, 신정 와드: 권 장수 형제, 박 영찬 형제, 남 선택 형제, 광안 와드: 이상구 형제, 오 옥새 형제, 박 관수 형제, 김 선중 형제, 강 원구 형제, 김 요택 형제).

참석 인원: 632명. *

삼성 와드 예배당 헌납식 (청주 스테이크)

청주 스테이크 소속 삼성 와드의 예배당 헌납식이 6월 22일 황 충열 스테이크 부장의 감리로 대전 삼성 와드에서 있었다.

뉴먼 형제를 비롯하여 건축을 맡았던 중일 건설 임직원 그리고 1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착공 9개월 만에 완공된 이 건물에서 그동안 와드 회원들은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예배실에 고정된 의자가 없는 것이 특색이며 활동실이 필요할 때는 의자를 치우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다.

대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무대 장치가 되어 있어서 회원들의 재능을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

헌납식을 마치고 함께 모인 회원들

특히 건물 상징탑이 아름답게 보이도록 야간에는 조명 장치를 하여서 인근 주민들에게 호기심을 갖게 하고 있다.

이날 황 충열 스테이크 부장은 헌납 기도를 하는 가운데 삼성 와드 예배당이 기도의 집, 질서의 집이 되도록 간구하였다.

최 승국 감독은 말씀하는 가운데 개인의 발전을 위하여 존재하는 건물이 되도록 회원들이 아끼고 사랑하며 모두 관리인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삼성 와드 감독단은 주민들에게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전시회를 갖기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